

## UR 협상과 韓國의 高等教育

高 炯 一  
(全南大 敎育學科)

동·서독의 통합은 軍事的 冷戰體制의 종말을 상징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통상 협상 회의(이하 UR)는 자본의 세계적 대이동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다. 세계는 이제 그 힘의 대결을 군사적 부문에서 경제적 부문으로 옮기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느슨하게 유지하여 오다가 동·서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세계 자본의 중심이 미국·일본·유럽 공동체(EC) 등으로 다극화되자, 새로운 GATT 체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특히 '80년대 수출 보조금 등 농업 보호 정책으로 농산물 수출국으로 부상한 EC와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식량 자급화 속에 미국의 농업 공황이 심화되었으며, 세계 무역에서 금융·보험·유통 등의 서비스 산업과 지적 소유권 등을 비롯한 새로운 분야에서 통상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자국의 산업 구조의 변화—농업 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 산업 팽창—를 반영한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 즉 UR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UR은 미국이 농업 및 서비스 산업에서의 比較優位를 무기로 하여 군사적 패권 대신 경제적 패권을 회복 내지 강화하려는 전략 중의 하나라 하겠다.

UR은 관세·비관세, 농산물, 지적 소유권, 긴급 수입 제한 등 14개 분야의 상품 협상 그룹과 정보·통신·건설·금융·항공·보건·관광·법무·교육·광고·부동산 등 거의 모든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서비스 협상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상 시한은 1990년말로 설정되어 있다. 서비스 분야는 1986년 UR이 시작되면서 최초로 도입된 분야로서 UR에서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f Trade in Services)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GATS에서의 주된 쟁점 조항은 내국민 대우, 무차별 원칙, 영입의 자유 등이다. 이러한 조항들이 미국·일본 등 선진 자본국의 의도대로 타결될 때 지금까지 산업별로 요구되었던 사업 활동의 제한

---

및 사업의 실적 요건(국산화 요건, 수출 실적 요건, 과학·기술 이양 요건) 등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외국 업체들이 국내에 지점, 사무소, 현지 법인, 국내 기존 기관의 흡수 및 합병 등을 통해서 국내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 영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무제한적으로 외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UR은 우리의 교육제, 특히 高等教育 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 교육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신흥 공업 국가로 부상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엄청난 자본과 막대한 시간이 투자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선진 자본국 수준의 高附加價值 産業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과학과 기술을 배워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외국어, 특히 영어와 과학적 지식을 社會階層 上昇에 필요한 핵심적 지식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 대학의 학위는 사회의 상층부로 들어 가는 신용장이었다. 지금은 비록 이것의 가치가 조금 하락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최소한 증산층은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계층 상승의 도구로서 외국어와 외국 대학의 학위는 한국인의 焦眉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외국 유학이다. 최근의 한 자료는 “유학을 가려는 사람의 60~70%는 20세 정도로 이들의 고등학교 성적은 대부분 형편없다”, “대학 진학을 못하여 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두 명 정도 상담하러 오는데, 이들의 학부모들이 더 열성을 갖고 유학 상담을 해 온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에 못 들어가 외국 대학으로 간 경우, 이들은 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특히 외국어와 전공 실력의 부족 그리고 심리적 소외감 때문에—중도 포기하기가 쉽다. 그리하여 “교육 때문에 유학까지 보냈는데……”라고 한탄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GATS가 선진국의 의도대로 타결된다면 가장 먼저 외국 대학의 한국내 分校가 雨後竹筍처럼 생겨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조건뿐만 아니라 외국 조건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베이비 붐의 소멸과 경제 성장의 둔화로 대학 입학 희망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그리하여 각 대학마다 치열한 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조건 때문에 GATS는 외국 대학의 한국내 分校 설치를 加速化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전문대학을 비롯하여 세칭

---

일류에 끼지 못하는 대학들은 입학 정원의 감소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대적 열등감은 지금보다 훨씬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져 올 수 있는 문제는 이들 분교가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자연과학 분야보다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외국 대학의 분교에서는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 특히 경영대학원의 MBA 과정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뛰어난 판매 경영 기법이 국내에서, 그것도 외국어로 강의될 때, 국내 대학원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격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대학, 기업, 군부, 관청의 중심 인물들—은 외국 대학의 분교를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外國大學의 學位에 대한 한국인의 羨望意識이 이들 분교 설치와의 上昇作用으로 인해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줄곧 미국에만 의존해 온 한국이 그 학문적 토양의 뿌리를 미처 내리기도 전에 전면 개방될 경우, 우리의 학문이라는 나무는 영영 뿌리 없는 나무, 저항력이 약한 나무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民族的 正體性을 상실한 文化的 殖民地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은 기존의 국내 고등교육의 社會的 差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외국 문화의 직수입으로 無國籍 韓國人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외국 대학 분교 설치의 긍정적 측면도 없지는 않다. 구태의연한 지식과 강의 기법의 변화가 예상되며, 엄격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출·결석 관리로 행사로 인한 수업 시간의 결손과 휴강이 잦은 기존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제 경쟁으로부터의 보호와 국내의 암묵적 합의 때문에 용인되었던 비교육적 관행들이 자유 경쟁의 원리 앞에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 사항도 외국의 분교가 국내 대학의 기존 관행과 적당히 타협하여 超過利潤만을 極大化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물거품이 되어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UR, 특히 GATS가 선진국의 의도대로 관철될 때, 韓國의 從屬은 경제와 기술을 매개로 문화·교육의 영역에까지 확대·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교부는 국민 경제 및 국민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 속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국내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히 공개하여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조직적 단결과 대항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